

“도라산역, 평화를 다시 잇다.”

- 5개 기관 협력, 6년 6개월 만에 '서울↔도라산' 'DMZ 평화이음 열차' 운행 재개 -

- 지난 6년 6개월간 중단되었던 서울역-도라산역 정기 관광열차가 오는 4월 10일부터 운행을 재개한다.
 - 도라산역은 남쪽의 마지막 역이며 북쪽으로 갈 수 있는 첫 번째 역으로서 남북 연결의 출발점이자 남북 교류협력의 상징적 공간이다.
 - 이러한 도라산역의 상징성을 바탕으로 DMZ를 가로질러 남북을 평화로 연결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번에 운행을 재개하는 열차의 명칭을 「DMZ 평화이음 열차」로 명명하였다.
 - 「DMZ 평화이음 열차」의 운행 재개로 국민들이 임진강역을 넘어 민통선 지역의 도라산역으로 가는 열차 여행을 즐길 수 있게 됨과 동시에,
 - 도라전망대 등 DMZ의 평화 관광지를 연계 방문하여 한반도 평화의 의미와 가치를 직접 체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 - ※ 「DMZ 평화이음 열차」 예약은 코레일(www.korail.com), 코레일관광개발(www.korailtravel.com), DMZ 평화관광(dmz.paju.go.kr) 등을 통해 가능, 매일 둘째주 및 넷째주 금요일 운행
-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「DMZ 평화이음 열차」의 새 출발을 기념하기 위한 “도라산역, 평화를 다시 잇다” 행사를 4월 10일(금)에 서울역과 도라산역 일원에서 개최한다.
 - 기념행사는 서울역에서 1부(열차시승식), 도라산역에서 2부(열차 재개 기념식)가 진행되며, 3부는 주변 평화관광(캠프그리브스)으로 진행된다.
 - 동 기념식에는 국회의원, 북향민, 이산가족, 외국인 학생, 청소년, 종단 및 민간단체장 등 국민을 대표하고 남북관계 발전에 상징적인 인물 등 총 26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.

- 한편, 이번 열차 운행 재개는 통일부, 국방부, 경기도, 파주시, 한국철도공사 등 5개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이루어낸 성과이다.
 - 「DMZ 평화이음 열차」 운행 기념식에서 5개 기관장은 DMZ의 지속 가능한 평화적 가치 확산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5개 기관 공동 협약을 체결한다.
 - 또한, 5월부터는 이번 협약의 후속 조치로 열차를 확대 운행(월 4회)하기 위한 관련 실무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.
 - 단순히 운행을 확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존 관광지(도라산역, 도라전망대, 통일촌 등)에 캠프그리브스, 도라산평화공원 등 DMZ 주요 관광지를 추가하여 국민들에게 다양한 평화관광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.
- 정부는 이번 열차 운행 재개 및 기념식 개최를 통해 DMZ 일원 평화관광을 활성화하고 평화공존의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확산시켜 나갈 것이다.

- 붙임 : 1. 「도라산역, 평화를 다시 잇다.」 주요 행사 일정
 2. 주요 참석자 현황
 3. 「DMZ 평화이음 열차」 개요

담당 부서	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출입관리과	책임자	과 장	이유진 (031-950-5000)
		담당자	주무관	이지호 (031-950-5020)
	국방부 군비통제비확산정책과	책임자	과 장	박민호 (02-748-6250)
		담당자	중 령	김상국 (02-748-6251)
	경기도 DMZ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영옥 (031-8030-2650)
		담당자	주무관	김유진 (031-8030-2653)
	파주시 관광과	책임자	과 장	한윤자 (031-940-4360)
		담당자	주무관	이정민 (031-940-8343)
	한국철도공사 광역마케팅처	책임자	처 장	양태훈 (02-3149-2770)
		담당자	과 장	김다솜 (02-3149-2782)

붙임 1 '도라산역, 평화를 다시 잇다.' 주요 행사 일정

일 정	주 요 내 용	비 고	
시승식 (1부)	~9:30	초청자 명단확인 등	· 경의중앙선(구서울역)
	9:50~	통일부장관, 승차권 개찰(편칭) 행사 - 일반인, 외국인 학생 등 참여	· 경의중앙선 게이트
	10:00	서울역 출발	
열차 이동	10:05	주요 인사 인터뷰 등 열차 내 프로그램 진행 * 감성방송, 느린우체통, 포토존 운영	· 명계남 황해도지사, 전직 장관 등
	11:02	임진강역 도착	
	11:22	도라산역 도착	
기념식 (2부)	11:32	도라산역 역사 해설	
	11:40~ 12:50	열차 운행 재개 기념식 진행 - 국민의례 - 기념사 : 통일부장관 - 축사 및 격려사 : 관계기관장, 주요 내빈 - 5개 기관 공동 MOU 체결식 - 축하공연 - 내빈 기념촬영 - 폐회	· 도라산역 내부 플랫폼
평화관광 (3부)	13:05	오찬	· 통일촌
	14:00	캠프그리브스 관람	· 갤러리 그리브스 · 탄약고
	15:10	도라산역 출발(서울역 향발)	· 도라산역 외부 플랫폼

붙임 2 주요 참석자 현황

구 분	기 관	참 석 자
통일부		· 장관, 회담본부장, 기조실장, 대변인 등
		· 전직 장관(임동원, 이재정, 정세현, 조명균)
관계기관	국방부	· 차관(이두희) 등
	경기도	· 도지사 권한대행(김성중), 평화국장, 도의원(조성환) 등
	파주시	· 시장(김경일), 문화국장, 관광과장 등
	한국철도공사	· 사장(김태승), 코레일 관광개발사장(이우현) 등
유관기관	국회	· 외통위·국토위 국회의원 및 보좌관 - 추미애, 박정, 이용선, 김영배, 한준호, 이재강 의원 - 외통위 전문위원, 행정실장
	국토부	· 제2차관(홍지선), 철도국장 등
	청와대	· 통일비서관(정대진), 국정상황실 등
	이북5도위	· 황해(명계남), 평남(정경조), 평북(이세웅), 함남(손양영) 지사
일반인		· 북향민,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, 7대종단 등
		· 외국인 학생(일본, 몽골 등 연세대 어학당 유학생 5명)
		· 북민협·민화협·민통 등 민간단체장
기자단		· 통일부 출입기자단

1 배경

- o 중단(19년)된 도라산역 열차 운행 재개를 통해 남북 간 적대·대결을 종식시키고 평화공존으로 나아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
- o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을 상징하는 ‘도라산역’ 열차운행을 연계한 DMZ 평화 관광 활성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·통일 공감대 확산

2 열차 운영(안)

- o 열차 명칭 : 「DMZ 평화이음 열차」
- o 주관 기관 : 통일부, 경기도, 파주시, 한국철도공사(협조 기관 : 육군 1사단)
 - * 운영기관 : 코레일관광개발 / 예약처 : 코레일관광개발 홈페이지
- o 운행 구간 : 서울(출발: 08:45, 도착: 16:35) ↔ 운정 ↔ 임진강 ↔ 도라산* (도착: 10:31, 출발: 15:09)
 - * 탑승인원 도라산역 하차 후 도라산역, 도라전망대, 통일촌 등 관광 진행
 - ※ 4월 10일은 기념식 행사로 인해 통상적 열차시간 및 탑승인원 등과 달리 운영
- o 운행 일정 : '26.4.10.(금) ~, 회당 120명 규모
 - * '26.4~5월 : 매월 둘째주, 넷째주 / 6월 이후 매주 금요일 운행(월 4회) 예정

